

# 한국 찬송가 번역 가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김 남 수  
(교회음악 교수)  
namskim@kbtus.ac.kr

## I. 들어가는 말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같은 곡조의 찬송이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찬송가는 어법의 변화와 믿음의 신조에 따라 가사의 표현을 달리해 온 것이다. 신앙의 표현을 위해서 교회음악은 잘 창작되어야 하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찬송뿐만 아니라 새로 번역되는 찬송도 마찬가지이다.<sup>1)</sup>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찬송은 선교사 개인이나 출신 교단의 특성이 찬송 가사에 나타난다.

한국 찬송가책은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편집된 초기의 찬송, 한국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발전한 20세기 중기의 찬송, 그리고 21세기 초부터 초교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찬송이 개발된 현대의 찬송으로 분류된다. 한국 찬송가는 이 세 시기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가사의 변화를 거듭

---

1) Erik Routley, *Hymns and Human Life* (London: John Murray, 1952), 299.

하였다.

찬송 가사의 변화는 매우 민감하여 교회와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찬송 가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이다.<sup>2)</sup> 한국 교회는 찬송가책을 만들 때마다 잠시 논의하는 것을 제외하곤 찬송 가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찬송가는 일회성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되어 시대에 알맞은 신앙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찬송 가사에 대한 연구는 문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찬송 가사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 찬송 가사가 변화되어 온 것에 대한 연구이다. 이제 『21세기찬송가』(2006)를 발행한 지 12년이 되어 한국 교회가 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찬송가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선교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찬송 가사의 변화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찬송 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각 시대의 교파별 또는 연합하여 발행된 찬송 중에서 특징 있는 찬송 한 곡씩을 선택하여 같은 시대의 찬송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론인 II장에서 선교 초기 교단별 찬송 가사의 변화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찬송에 나타난 가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 선교 초기 교단별 대표적 찬송가책으로써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장로교의 『찬양가』(1894), 『찬성시』(1895), 감리교의 『찬미가』(1895, 1905), 침례교의 『복음찬미』(1904, 1926)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만든 『찬송가』(1908)를 중심으로 분석한다.<sup>3)</sup>

III장에서는 20세기 중기 한국 찬송가 가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

2) 김남수, 『찬송의 이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213.

3) 『찬송가』(1908)는 장로교의 『찬성시』(1905) 113편, 감리교의 『찬미가』(1905) 82편, 그리고 언더우드의 『찬양가』(1894)에서 30편을 통합하여 만들었다. 조숙자, 『한국 개신교 찬송가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70-1.

세기 중기에 한국 교회에서 활발히 사용된 「합동찬송가」(1948)와 「새찬송가」(1962) 그리고 「개편찬송가」(1967)에 나타난 가사를 비교할 것이다. 문법의 체계가 갖추어진 시대로써 어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IV장에서는 한국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만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1세기찬송가」(2006)를 중심으로 나타난 가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찬송이 어떤 이유로 수정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찬송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결론에서는 앞으로 발행될 한국 찬송가 가사 짓기 또는 찬송 번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이 찬송 가사 붙이기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II. 선교 초기 교단 별 찬송 가사의 특징

한국 선교 초기의 찬송가책은 교단 별로 발행되었다. 선교 초기 각 교단은 외국 찬송을 번역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 가사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작업한 경우도 있어서 찬송에 따라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다. 선교 초기 감리교의 「찬미가」는 배재학당 교사 조지 존스(George Heber Jones, 1867-1919)와 이화학당 교사 루이자 로드와일러(Louisa C. Rothweiler, 1853-1921) 등이 편집을 주도했다.<sup>4)</sup> 장로교는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독자적으로 편집한 「찬양가」(1894)와 북 장로회 선교부가 발행한 「찬성시」(1895)를 비롯한 여러 판을 사용했다.<sup>5)</sup> 그 후 장로교

4) George H. Jones and Louisa C. Rothweiler, "Preface," 「찬미가」(경성: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5).

5) 1898년판의 편집위원으로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찬송가」(1908)를 만듬으로써 부분적이지만 한국 교회가 찬송가책 발행에 연합했다.

선교 초기인 1900년대 초기에 사용되었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중심으로 「찬양가」(1894), 「찬성시」(1895), 「찬미가」(1895), 「복음찬미」(1904), 「찬미가」(1905), 「찬송가」(1908) 등이 사용되었다.<sup>6)</sup> 선교 초기 찬송가책에 빠짐없이 수록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은 각 찬송에서 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sup>7)</sup>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JESUS LOVES EVEN ME)”<sup>8)</sup>

하늘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느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늘 아버지 사랑하기를
이상코 모흔 말씀 만코나	이상코 모흔 말씀 만코나	성서에 써시니 내 깃부오
반갑고 도흔 말씀 만흔 줌	반갑고 도흔 말씀 만흔 줌	괴이흔 말 성서에 만흔도
날 사랑헌단 말씀 도코나	날 사랑헌단 말씀 도코나	그 줌 데일 괴이흔 말잇소
(후렴)	(후렴)	(후렴)
예수 날 사랑헷섯시니	예수 날 사랑헷섯시니	예수 날 사랑하니 깃부
즐겁고도 도홀시고	즐겁고도 도홀시고	예수 나를 사랑헷소
예수 날 사랑헷섯시니	예수 날 사랑헷섯시니	예수 날 사랑하니 깃부

1864-1916)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 명의 선교사가 참여했다. 1902년 판까지는 베어드가 편찬책임을 맡았으며 1902년 이후에는 밀러가 주도했다. 문옥배, 「한국찬송가 100년사」(서울: 예술, 2002), 131; Horace G. Underwood, 「찬양가」(경성: 예수성교회당), 1894.

- 6) 이들 찬송가책에 모두 중복된 찬송은 “하느님 아버지 주신 책에,” “주님 날 사랑함을,” “예수 씨 음성 드르되.” “아모되나 예수 씨와 가리도”이다.
- 7) 원어 가사: 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Tells of his love in the Book he has given: Wonderful things in the Bible I see, This is the dearest, that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 Jesus loves even me. *The Hymnal for the Worship & Celebration*, (Waco, Texas: Word Music, 1993), 357.
- 8) 이 찬송은 근대와 현대찬송에 실렸는데 「합동찬송가」(165장), 「새찬송가」(222장), 「개편찬송가」(443장), 「통일찬송가」(241장), 「21세기찬송가」(202장)를 참조하라.

줌으로 도쿄나 『찬양가』(1894: 20장 1절)	나는 줌 반갑소 『찬성시』(1895: 7장 1절)	날 쯔 사랑호오 『찬미가』(1895: 48장 1절)
하늘님 아버지 주신 책에 도훈 깃부신 말씀 만코나 아름답고 도훈 말씀 줌에 예수씨 날 사랑흠 데일이다 (후렴) 예수씨 날 사랑하시니 나는 깃부오 나는 깃부오 예수씨 날 사랑하시니 나는 줌 반갑쇼 『복음찬미』(1904: 1장 1절)	하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상코 모흐신 말씀일네 반갑고 깃흐신 말 만흔 줌 날 사랑흐신단 말 도쿄나 (후렴) 예수씨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도홀시고 예수씨 날 사랑하시니 나는 줌 반갑소 『찬미가』(1905: 118장 1절)	하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줌흐신 말씀일네 반갑고 깃브신 말 만흔 줌 날 사랑흐신단 말 도토다 (후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줌 깃브다 『찬송가』(1908: 187장 1절)

장로교 찬송가책인 『찬양가』(1894: 20장)와 『찬성시』(1895: 7장)에 수록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을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후렴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만 다를 뿐 1-5절의 가사가 같다. 찬송가책 발행을 놓고 남 장로교 선교부와 북 장로교 선교부가 갈등을 겪은 후 출판된 『찬성시』에 수록된 54편 중, 48편이 『찬양가』로부터 가져온 것을 보면 조금 수정한 것이지 전폭적으로 새롭게 편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후렴 마지막 행에서 『찬양가』는 ‘줌으로 도쿄나’로 번역했고 『찬성시』는 ‘나는 줌 반갑소’로 표현하고 있다.

반복되는 후렴의 첫 행인 ‘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를 각 찬송가책은 ‘즐겁고도 도홀시고,’ ‘예수 나를 사랑호오,’ ‘나는 깃부오 나는 깃부오,’ ‘즐겁고도 즐겁도다’로 번역하였다. 후렴의 마지막 부분인 ‘I am so glad’를 ‘줌으로 도쿄나,’ ‘나는 줌 반갑소,’ ‘날 쯔 사랑호오,’ ‘나는 줌 반갑쇼,’ ‘나는 줌 깃브다’로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했다. 대부분 찬송가책이 ‘좋다,’ ‘반갑다,’ ‘기쁘다’를 사용한 반면에 『찬미가』(1895)에서는 ‘날 쯔 사랑호오’로 번역했다. 이것은 원어(I am so glad that Jesus loves me)의 가사 위치와 같게 배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3행의 ‘Wonderful things’를 ‘반갑고 도훈,’ ‘괴이흐,’ ‘아름

답고 도훈, '반갑고 김호신,' '반갑고 깃브신'으로 번역함으로써 찬송마다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흥미로운 것은 감리교의 『찬미가』(1905)에 실린 찬송이 이전에 발행된 『찬미가』(1895)의 번역을 따르지 않고 타교단에서 발행된 찬송을 따르는 점이다. 이것은 선교 초기에 교단별로 찬송가책을 발행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찬송 번역에 초교파적으로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찬미가』(1895)는 독자적인 번역이었지만 1905년판의 버스(verse)는 『찬양가』와 『찬성시』로부터 가져왔고 후렴구는 『복음찬미』로부터 가져왔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을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각각 번역하여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 1863-1935)이 번역한 『복음찬미』 번역본이 채택되었다.<sup>9)</sup> 『복음찬미』에 실린 이 찬송은 『찬미가』(1905)에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찬송가책인 『찬송가』(1908)가 편집될 때 펜윅이 번역한 찬송이 수록되었다. 1931년에 발행된 『신정찬송가』에는 모든 가사가 같은데 ‘주 예수 날 스랑 흐시니’를 ‘주 예수 날 스랑흐니’로 수정하여 현대 번역본의 틀이 되었다. 이것은 가사와 음악의 어울림을 위해 음절을 맞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에 나타난 가사의 중요한 특징은 신(God)에 대한 호칭이다. 선교 초기 처음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신에 대한 호칭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선교 초기 각 교단의 선교사들은 신에 대한 호칭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찬양가』는 ‘하늘의 아버지’로 『찬미가』는 ‘하늘 아버지’로 호칭하였고 『찬성시』, 『복음찬미』, 『찬미가』, 『찬송가』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로 불렀다.<sup>10)</sup> 이후 찬송을

9)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Mission, North, “Preface,” 『찬성시』(1895). 펜윅이 1899년에 발행한 『복음찬미』의 원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어서 1904년에 발행된 『복음찬미』와 가사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펜윅이 『복음찬미』(1899)를 발행하기 전에 『찬성시』(1895)에 실린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을 번역하여 타 선교사들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당시 여러 찬송에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한 반면에 펜윅은 성부

번역할 때 언더우드는 신의 호칭으로 ‘아버지’와 ‘여호와’를 사용했고, 새로 편집된 감리교의 「찬미가」와 장로교의 「찬성시」는 ‘아버지’와 ‘여호와’ 대신 ‘하느님’을 사용했다. 감리교와 북 장로교 선교사들은 언더우드가 편집한 「찬양가」(1894)를 수용하지 않고 「찬미가」(1895)와 「찬성시」(1895)를 발행하여 사용했는데 신의 호칭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sup>11)</sup>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 매우 단순한데도 시제를 다르게 사용하였다. 선교 초기의 찬송가책에 나타난 시제를 볼 때 「찬양가」(1894)와 「찬성시」(1895)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과거시제로 표현했지만 나머지 찬송가책에서는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과거 또는 현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국 찬송가책에 나타난 대부분의 번역 찬송가는 축자적인 직역보다는 의역이 많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절수가 영어보다 많아서 가사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hrist’를 한국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인데 결과적으로 1음절(Christ)이 4음절(그리스도)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은 언어구조의 차이로부터 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역에 관심을 쏟았다.<sup>12)</sup>

펜윅은 이 찬송의 후렴에 ‘예수 씨 날 사랑하시니’로 번역했는데 ‘예수 씨’로 호칭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칭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사용했던 「찬송가」(1908)에서는 ‘예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에서 ‘하나님, 여위님, 성부님, 던부님’ 등을 사용했다.

- 11) 김남수, 「찬송의 이해」, 220.
- 12) 펜윅은 의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작에 가까운 번역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21세기찬송가, 288장)의 2절은 원어를 참고하여 지은 창작찬송이다. ‘확실히 복은 주의 있네. 영화의 증거 춤되게 하오네. 장자의 업을 밧앗도다. 피로 덮혀서 신으로 나오.’ Malcolm C. Fenwick, 「복음찬미」(원산: 대한기독교회, 1926), 5.
- 13)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인 펜윅은 성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존칭을 사용했다. 펜윅은 성부를 “하나님(하느님), “여위님(여와님), “성부님,” “던부님,” 성자를 “구주님,” “구세주님,” “그독,” “대왕님,” “대제스장님,” “대장님,” “독싱

수'라고 번역했지만, 펜윅이 독창적으로 사용한 '예수 씨'라는 존칭이 그 당시 「찬미가」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펜윅의 존칭 사용은 다른 찬송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감리교의 「찬미가」 1895판에서 '예수가 말씀하기를 내게 와 쉬어라'를 1897년 판과 1905년 판에는 '예수 씨 말씀하기를 내게 와 쉬어라'로 수정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펜윅은 「복음찬미」에서 일관성 있게 찬송마다 존칭을 사용했는데 “대왕님 예수 씨 피가”(At the Cross), “제 구주 예수 씨 제 주으로 아오”(My Jesus, I Love Thee), “예수 씨 드르 오기를”(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아모디나 예수 씨와 가을 즈”(Anywhere with Jesus), “예수 씨께서 었던지”(Jesus Shall Reign), “예수 씨여 이 인칭은”(Thoughts of Jesus), “예수 씨로 싸흠세”(Stand up, Stand up for Jesus) 등에서 보여준다.<sup>14)</sup> “하나님 아버지 주신 칙에”(1926: 41장)는 존칭과 비칭이 확실히 나타난다.<sup>15)</sup>

선교 초기 각 교단에서 발행한 찬송은 큰 맥락에서 볼 때 내용은 같지만 표현의 다름이 발견된다. 한글 문법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한글에 서툴렀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번역은 초교과적으로 진행됐지만 찬송 번역에는 협력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즈, “목수님,” “목주님,” “벗님,” “부주,” “비들이,” “선장님,” “신랑님,” “상던님,” “성주님,” “선지,” “선칭님,” “예수 씨,” “어리신 양님,” “장주님,” “주님,” “주지님,” “증보님,” “량반님,” “하나님 양,” “황태님,” “형님,” “황,” “태주,” 성령을 “숨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남수, 「침례교찬송가: 복음과 찬미」(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39.

14) 「찬송가」(1908), 280장, 188장, 147장, 178장, 32장, 12장, 165장, 222장을 참조하라.

15) 김남수, 「침례교찬송가: 복음과 찬미」, 39.

### Ⅲ. 20세기 중기 한국 찬송가 가사의 변화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 이후 20세기 중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합동찬송가」(1949), 「새찬송가」(1962) 그리고 「개편찬송가」(1967)를 발행했다. 「합동찬송가」 사용을 거부하여 장로교의 고신측과 합동측이 주축이 되어 출판한 「새찬송가」는 「신편찬송가」를 기초로 하여 구미 각국의 찬송 중에서 선곡하여 새롭게 수록되었고, 그 외 교파들에 의해 「합동찬송가」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편찬송가」가 발행되었다.<sup>16)</sup>

20세기 중기에 발행된 「신편찬송가」(1935, 14장)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온 천하 만물 우러러”(All Creatures of Our and King)는 「합동찬송가」(1949), 「새찬송가」(1962), 「개편찬송가」(1967)에 차례대로 수록되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Saint Francis of Assisi, 1181-1226)가 이탈리아어로 쓴 찬송시를 윌리엄 드레이퍼(William Draper, 1855-1933)가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한국어로 재번역한 것이다. 이 찬송은 예배 찬송으로써 이후에 발행된 모든 찬송에 수록되었는데 번역의 차이가 나타난다.<sup>17)</sup>

“온 천하 만물 우러러”(LASST UNS ERFREUEN)<sup>18)</sup>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16) 새찬송가편찬위원회, 「새찬송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2), 4-5.

17) 원어 찬송; (1)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Alleluia! Alleluia!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Refrain*) O praise Him! O praise Him! Alleluia! Alleluia! Alleluia! (6) Let all things their creator bless, And worship Him in humbleness, O praise Him! Alleluia! Prais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And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Baptist Hymnal* (Nashville: LifeWay, 2008), 11.

18) 「통일찬송가」(33장)와 「21세기찬송가」(69장)를 참조하라.

내 주를 찬양하여라	내 주를 찬양하여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빛의 근원되시며	참 빛의 근원되시며	너 금 빛나는 해야
저 밝은 해를 지으신	저 밝은 해를 지으신	너 은 빛나는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3	할렐루야×3	할렐루야×3
『합동찬송가』(10장 1절)	『새찬송가』(97장 1절)	『개편찬송가』(21장 1절)

선교 초기와 달리 20세기 중기는 문법이 체계화된 시대이다. 초기 번역 찬송들과 다르게 “온 천하 만물 우러러”는 한 찬송가책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다른 찬송가책에 수록될 때에는 최초 번역 찬송의 골격에서 조금 수정되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의 번역 찬송은 크게 두 버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발행된 『신편찬송가』(1935, 14장)와 가사 내용이 같은 『합동찬송가』(1949)와 『새찬송가』(1962)이며, 다른 하나는 『개편찬송가』(1967)이후에 출판된 찬송들로 구분된다.<sup>19)</sup>

『개편찬송가』에 나타난 이 찬송의 음악 편집은 『합동찬송가』의 편집과 같지만, 찬송 가사는 대폭으로 수정되었다. 우선 절수 구성을 보면 『신편찬송가』와 『합동찬송가』 그리고 『새찬송가』는 3절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개편찬송가』는 3절 구성의 찬송을 6절 구성으로 환원시켰다.<sup>20)</sup> 찬송은 일반적으로 유절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절수를 생략 또는 첨가할 때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곤 본래 작가의 의도가 존중되어야 한다. 작사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구상하고 찬송 가사를 짓기 때문이다. 『합동찬송가』와 『새찬송가』에 실린 “온 천하 만물 우러러”의 2-3절은 거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의

19) 『합동찬송가』에서는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곤 가사가 같다. 그러나 형식면에서 볼 때 『새찬송가』에서는 음악 편집을 프레이즈의 구별에 의하지 않고 박자대로 편집했으며 가창을 위해 스프링클러 표를 붙였다.

20) Hymnary,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온라인 자료] [https://hymnary.org/text/all\\_creatures\\_of\\_our\\_god\\_and\\_king](https://hymnary.org/text/all_creatures_of_our_god_and_king), 2017년 12월 26일 접속.

역되었지만, 모두 6절로 구성된 『개편찬송가』에서는 원어에 충실히 번역되었다.<sup>21)</sup>

『새찬송가』와 『개편찬송가』에 나타난 1절을 비교하면 첫 행의 시작과 특징적인 마지막 행이 같기 때문에 가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1절 2행은 ‘내 주를’(신편찬송가, 합동찬송가, 새찬송가)과 ‘다 주를’(개편찬송가)을 사용함으로써 찬양하는 주체인 주어를 생략한 것만 다를 뿐이다. 두 찬송 모두 못갖춘마디 구성의 음악과 가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sup>22)</sup>

두 찬송 가사의 특징 있는 차이는 4-5행에 나타나는데 문체로 인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원어인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을 『신편찬송가』, 『합동찬송가』 그리고 『새찬송가』는 ‘참 빛의 근원되시며, 저 밝은 해를 지으신’으로 번역했지만 『개편찬송가』는 ‘너 금 빛나는 해야, 너 은 빛나는 달아’로 표현했다. 앞의 세 찬송가책은 음악의 강세와 가사의 운율적 구조에 관심을 두고 번역하였고, 『개편찬송가』는 시적 뉘앙스를 살리고 있다.<sup>23)</sup> 다시 말해 먼저 번역된 세 찬송가책은 가사와 음악의 일치에, 『개편찬송가』에 실린 이 찬송은 의미를 살리면서 매우 시적으로 잘 표현되었다. 그러나 찬송의 시적 표현을 강조한 나머지 수정된 찬송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합동찬송가, 432장)를 ‘늘 함께 하소서 귀하신 주’(개편찬송가, 455장)로 표현한 것은 가사를 생소하게 만들었다.<sup>24)</sup>

21) 『통일찬송가』(1983)와 『21세기찬송가』(2006)에 수록된 이 찬송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개편찬송가』의 골격을 따르고 있다.

22) 홍정수, 『교회음악 예배음악 신자들의 찬양』(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313-37을 참조하라.

23) 곽상수, 『예배음악과 한국교회』(서울: 도서출판 마루, 2002), 71.

24) 『개편찬송가』에서는 모든 절의 첫 행이 ‘늘 함께 하소서’로 시작된다. 이 찬송은 1983년에 발행된 『통일찬송가』와 『21세기찬송가』(2006)에서 『합동찬송가』 가사로 환원되었다.

“온 천하 만물 우리러”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의 중간에 위치한 두 번의 ‘할렐루야’와 마지막 부분에 세 번의 ‘할렐루야’가 모든 절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한국 번역 찬송은 ‘할렐루야’를 원곡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가사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sup>25)</sup> 그러나 『개편 찬송가』에는 모든 절에서 원어 찬송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지만, 1-5절과 달리 6절의 6행은 ‘주를 찬양 할렐루야’로 표현함으로써 균형을 잃었다. 다시 말해 원어 찬송은 모든 절의 6행에서 ‘O praise Him! O praise Him!’(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라)으로 되어 있는데, 『개편찬송가』는 1-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표현한 반면에 마지막 절인 6절에서만 ‘주를 찬양 할렐루야’로 표현하여 앞의 절들과 달리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sup>26)</sup> ‘할렐루야’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성경용어는 원곡대로 음악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7)</sup>

---

25) 원어 찬송에서는 ‘Alleluia’를 사용하는데 번역 찬송에서는 ‘할렐루야’로 바꾸었다. 두 낱말의 의미는 같지만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부터 가져왔으며 ‘알렐루야’는 그리스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 미국 찬송과 성경은 두 가지를 혼용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NASB, NIV, RSV)와 ‘알렐루야’(KJV, NKJV, NJB)를 쓴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개신 교회는 공식적으로 ‘할렐루야’를 사용하며 가톨릭 교회는 ‘알렐루야’를 사용한다.

26) 아마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종지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앞의 다섯 절에서 표현했던 뉘앙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다. 원어 가사처럼 모든 절을 동일한 가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목마른 내 영혼”(21세기찬송가, 309장) 4절의 원어는 ‘I hear the billows surging, I see them mount and roll: Oh, glory, hallelujah! they’re sweeping through my soul’인데 이것을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로 번역하였다. 즉 ‘할렐렐루야’가 원어의 ‘hallelujah’ 위치와 달리 배치하였다.

#### IV. 「21세기찬송가」(2006) 가사의 변화

1983년에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발행한 「통일찬송가」의 편집원칙은 당시 사용하던 「합동찬송가」, 「새찬송가」, 「개편찬송가」를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통일찬송가」가 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의 부족, 가사번역의 문제, 음악 편집의 문제, 체계화되지 못한 편집과정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었다.<sup>28)</sup> 21세기를 앞두고 20세기 말부터 한국 교회는 새로운 찬송가책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지루한 논쟁 끝에 2006년 「21세기 찬송가」를 내놓았다.<sup>29)</sup>

“내 영혼아 찬양하라”(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는 여러 번의 찬송가책 출판을 거치면서 가사가 바뀌었다.<sup>30)</sup> 이 찬송은 「새찬송가」(1962)에 소개되기 전에 이미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청년찬송

28) 구두회, “속칭 「통일찬송가」에 대하여,” 「교회음악」 통권 27호 (1984 봄): 20-4.

29) 새로운 곡 164편이 새롭게 편입되었는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한국인이 지은 신작찬송 108편이 수록된 것이다. 164편에는 한국인이 지은 111편과 외국 찬송으로부터 유입된 53편이 포함되었다. 한국인이 지은 찬송은 새로 지은 108편과 개작 및 다시 작곡된 “주 예수 믿는 자여”(178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206장), “어둠의 권세에서”(398장)이다.

30) 1.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to his feet your tribute bring. Ransomed, healed, restored, forgiven, evermore his praises sing. Alleluia, alleluia! Praise the everlasting King! 2. Praise him for his grace and favor to his people in distress. Praise him, still the same as ever, slow to chide, and swift to bless. Alleluia, alleluia! Glorious in his faithfulness! 3. Fatherlike he tends and spares us; well our feeble frame he knows. In his hand he gently bears us, rescues us from all our foes. Alleluia, alleluia! Widely yet his mercy flows! 4. Angels, help us to adore him: you behold him face to face. Sun and moon, bow down before him, dwellers all in time and space. Alleluia, alleluia! Praise with us the God of grace! *Baptist Hymnal*, 2.

가」(1959)에 수록되었는데, 「새찬송가」에 실리면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렸고, 그 후 「개편찬송가」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sup>31)</sup> 이후에 발행된 「통일찬송가」는 「개편찬송가」에 실린 것과 같으며, 「21세기찬송가」는 「통일찬송가」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sup>32)</sup>

“내 영혼아 찬양하라”(LAUDA ANIMA)<sup>33)</sup>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찬양하라 하늘의 왕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없디어서 찬양해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하고 구해주신	구속하신 넓은 은총	구속하신 넓은 은혜
주를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임금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새찬송가」(14장 1절)	「개편찬송가」(10장 1절)	「21세기찬송가」(65장 1절)

「새찬송가」(14장), 「개편찬송가」(11장), 「통일찬송가」(19장), 「21세기찬송가」(65장)에 수록된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모든 찬송이 시작 부분을 달리하고 있다. 크게 보면 「개편찬송가」는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나머지 세 찬송가책은 ‘내 영혼아’로 시작한다. 「개편찬송가」는 원어인 ‘Praise, my soul’을 표현하기 위해 명령법을 사용한 반면에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 그리고 「21세기찬송가」는 ‘내 영혼아’로 시작하여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고 있다.

「21세기찬송가」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의 5행인 ‘영원하신 임금에게’(새찬송가), ‘찬양하라 찬양하라’(개편찬송가), ‘내 영혼아 찬양하라’(통일찬송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바꾼 것이다. 먼저 발행된 「새찬송가」(14장)는 원곡 5행의 4음절을 단위로 모두 8음절로 구성된 ‘Alleluia

31) 오소운, “내 영혼을 찬양하라.” [온라인 자료] <http://blog.daum.net/osowny/15970065>, 2017년 12월 31일 접속.

32) 이 찬송의 번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4가지 찬송가책 중에서 「새찬송가」의 번역은 개성이 두드러진다.

33) 4가지 찬송가책을 비교하기 위해 「통일찬송가」 19장을 참조하라.

Alleluia'를 '영원하신 임금에게'로 원어와 다르게 표현했고, 나머지 3가지 찬송가책들은 5-6행에서 도치법을 사용했다. 『개편찬송가』(10장)에서는 '찬양하라 찬양하라'로 구성했으며, 『통일찬송가』(19장)에서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로 번역했다. 『21세기찬송가』(65장)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 'Alleluia, alleluia!'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바꾸었다.<sup>34)</sup>

결국 'Alleluia, alleluia! Praise the everlasting King'을 『새찬송가』는 5행과 6행을 도치하여 '영원하신 임금님께, 영혼아 찬양하라'로 나머지 찬송가책들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사용하는 성경적 외래어를 본래의 가사와 음악을 맞춘 것은 『21세기찬송가』에 나타난 큰 수확이다.<sup>35)</sup>

이 찬송이 보여주는 다른 특징은 가사의 강조 또는 가사와 음악의 조화

34) 원어찬송에는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번역 찬송에서 '할렐루야'가 삽입되어 잘 어울리는 찬송도 이따금 발견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21세기찬송가, 370장)의 후렴은 원어가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지만 가사와 음악의 조화가 매우 좋다. 후렴에서 사용한 번역 찬송의 '할렐루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Praising the Lord'를 '할렐루야'로 번역한 것이다. 후렴: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35) "샘물과 같은 보혈은"(21세기찬송가, 190장)에 사용된 1-2행의 원어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Immanuel's veins'이다. 이곳에 사용된 'Immanuel'(임마누엘)을 선교 초기와 중기 번역 찬송들은 3음절 구성의 'Im-man-uel'을 3음절에 맞추기 위해 '이-만-울'(찬미가), '임-안-울'(찬송가), '임-마-눌'(합동찬송가, 새찬송가) 등을 사용했다. 『개편찬송가』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4음절인 '임-마-누-엘'로 시도되었다가 『통일찬송가』에서는 3음절 표현인 '임-마-누엘'로 환원했다. 음절의 문제 때문에 『21세기찬송가』에서는 의미를 살려 'Immanuel'를 '주님의'로 번역했다. 이처럼 가사의 운율과 음악의 선율형태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김남수, "찬송 가사와 음악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43집 (2009 봄), 516.

를 위해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는 ‘영혼아 찬양하라’와 ‘내 영혼아 찬양하라’로 각각 한 문장으로 번역한 반면에 『개편찬송가』와 『21세기찬송가』는 반복함으로써 원어 가사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편찬송가』가 ‘찬양하라. 찬양하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21세기찬송가』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살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바꾸었다. 가사의 음절과 음악의 악센트가 일치해야 하는데 『새찬송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찬송가책의 찬송은 시적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었다. 원어 찬송이 ‘Alleluia, alleluia!’(D C# B A, D C# B A)에 하행 음계를 반복하여 어울리는 것처럼 『21세기찬송가』와 『개편찬송가』는 가사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2절 3-4행 ‘징계보다 사랑으로, 축복하여주셨다’에서 『개편찬송가』는 축복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통일찬송가』와 『21세기찬송가』는 ‘노하심은 더디 하고, 인자하심 넘치니’로 바꾸었다. 『21세기찬송가』는 여러 찬송에서 ‘축복’을 ‘복’으로 수정 또는 다른 문장으로 대체하여 표현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복을 내려 주시는 복의 주권자로 본 것이다.<sup>36)</sup>

각 절의 마지막 행은 후렴구는 아니지만 각 절에서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1절), ‘신실하신 하나님’(2절), ‘자비하신 하나님’(3절), ‘은혜로운 하나님’(4절) 즉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며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통일찬송가』는 각 절에서 ‘영원, 은혜, 자비, 영광’을 쓰는 데 비해 『21세기찬송가』에선 ‘영원, 신실, 자비,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원어에 충실하였다.

무엇보다도 『21세기찬송가』는 가사의 표현 또는 가사와 음악의 부조화로 인한 것에 관심을 두고 어색한 표현을 수정했다. 『새찬송가』가 사용한

36) 이전 찬송가책들에서 사용했던 낱말인 ‘축복’뿐만 아니라 제목분류에서 ‘축복과 감사’로 나누었던 찬송을 『21세기찬송가』에서는 ‘축복’이란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감사의 생활’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영혼의 햇빛 예수님”에서 ‘잠 깨 때 주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통일찬송가, 67장)를 ‘잠 깨 때 주어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21세기찬송가, 60장)로 수정했다.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엎디어서 찬양해’(1절)에서 ‘엎디어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이것을 『21세기찬송가』에서는 ‘엎드려’로 수정했다. 이것은 현대적인 표현법뿐만 아니라 음절의 문제와 연결된다. 가사의 음절과 음악의 부조화로 인해 어색한 번역을 예로 들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21세기찬송가, 246장)에 사용된 원어 첫 행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on Canaan’s happy shore’의 번역이다. 여기서 사용된 ‘가나안’이라는 고유명사는 한국어로는 3음절의 ‘가나안’이지만 영어는 2음절의 ‘Ca-naan’이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통일찬송가)를 『21세기찬송가』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로 번역했다. 다시 말해 음절수의 차이로 가사와 음악의 부조화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가난 복지(4)’에서 ‘가나안 땅(4)’로 수정한 것이다.<sup>37)</sup>

이처럼 『21세기찬송가』는 음절에 맞추면서 현대적인 어법에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했다.<sup>38)</sup> 찬송을 부르는 발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수정된 것은 높임법으로 사용되었던 ‘합소서’와 ‘줍소서’ 등이다. 이것을 모두 ‘하소서’와 ‘주소서’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찬송을 부르는 발성적인 면과 현대적인 표현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sup>39)</sup> 『21세기찬송가』에서 나타난 특징은 그리

37) “천사 찬송하기를”(126장)에 나타난 고유명사 ‘베들레헴’의 원어는 3음절(Beth-le-hem)로 구성되었는데 『통일찬송가』는 3음절로 사용했지만 『21세기찬송가』에서는 4음절로 바꾸었다. 7음절인 원어인 ‘Christ is born in Bethlehem!’를 한국 찬송가는 같은 7음절이지만 구성을 달리하여 ‘베들레-헴/나신 주’(21세기찬송가)와 ‘베들-레-헴-에/나신 주’(통일찬송가)로 번역했다. 전자는 원어의 음절과 일치하지 않고 후자는 일자일음 주의에 어긋난다.

38) “오 만세 반석이신”(74장)에서 ‘대 주재 하나님을’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쳤다. “날마다 주와 떨어져”(275장)에서 ‘날마다 주와 버성겨’를 ‘날마다 주와 떨어져’로 수정했으며, “너 성결키 위해”(420장) 등은 이미 『통일찬송가』 편집 시 현대어법으로 고쳤으나, “전능왕 오셔서”(10장)에서 ‘강생한 성자여’ 등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39) “하나님의 크신 사랑”(15장), “오 만세 반석이신”(74장), “영화로신 주 성령”(186장), “성령이여 강림하사”(190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286장), “그 누가 나의 괴롬 알며”(372장), “나의 갈 길 모르니”(375장), 등을 참조

스도인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사용해 왔던 기독교적 용어인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등을 원래의 음절에 맞춘 수정, 현대적 표현의 사용, 의미전달을 위한 표현 등이다.<sup>40)</sup>

## V. 나오는 말: 한국 찬송가 가사를 위한 제안

찬송가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음악은 가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고 했듯이 찬송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사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sup>41)</sup>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행되어온 한국 찬송 가사의 변화를 볼 때 신앙적 표현의 도구로서 역할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신학적인 문제, 시대적 감각에 알맞게 현대적 언어의 표현, 찬송 부르기의 실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찬송은 일회성 출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찬송이 수록된 후 끊임없이 찬송가책이 출판될 때마다 편집자들에 의해 수정되어 왔다. 펜윅의 경우 여러 차례 찬송가책을 독자적으로 발행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표현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찬송 가사를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 한국 교회는 미래에 새로운 찬송가책을 만들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외래어로 쓰인 성경의 고유적인 용어를 원곡과 같은 위치에 놓아

---

하라.

40) 김남수, “찬송 가사와 음악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43집 (2009 봄): 516.

41) Harry Eskew and Hugh T. McElrath, *Sing with Understanding*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80), 26.

야 한다. 외국어와 한국어의 음절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할렐루야’와 ‘호산나’ 등은 음성적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음악과 가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의 경우 대부분의 원어 찬송은 3번째 음절인 ‘루’에 강세가 오는데, 성경적 용어로부터 가져온 외래어는 원어 찬송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2)</sup>

둘째, 현대 어법에 맞추어 시대감각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다행히 새 찬송가책을 만들 때마다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했는데, 예를 들어 “오 만세 반석이신”(21세기찬송가, 74장 1절)의 ‘대 주재 하나님’을 ‘주 우리 하나님’으로, ‘무궁한 세대’를 ‘영원하도록’으로, “참 반가운 성도여”(21세기찬송가, 122장 1, 3절)의 ‘성내’를 ‘성안’으로 ‘강생’을 ‘탄생’으로, “어둔 밤 쉬 되리니”(21세기찬송가, 330장 2절)의 ‘골몰’을 ‘수고’로 바꾸었다.<sup>43)</sup> 그러나 몇 찬송에서 ‘강생’을 ‘탄생’으로 바꾼 반면에 “전능왕 오셔서”(21세기찬송가, 10장 2절)에서는 ‘강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구름 같은 이 세상”(21세기찬송가, 483장 1절)에서 ‘분토’는 어려운 낱말이며 “인류는 하나 되게”(21세기찬송가, 475장 2절)에서 ‘편당심’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어려운 낱말이나 문장이 아직도 남아있다.<sup>44)</sup> 특히 선교 초기 찬송은 난해한 부분이 많았는데, “홍암 송아지와 쓴 풀도 귀하신 향기와 썩어서 불로 온통 붙이온 재로 물 만 드옵네”(복음찬미, 1948: 9장)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sup>45)</sup>

42) “무덤에 머물러”(21세기찬송가, 169장)의 원어 후렴은 ‘He arose! He arose! Hallelujah! Christ arose!’인데 이것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로 옮겼다. 이곳에 나온 ‘할렐루야’를 넣어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43) “너 성결키 위해”(21세기찬송가, 420장)의 1절 1행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는」『개편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가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전에 사용되었던 『합동찬송가』에는 ‘골몰무가하나 늘 기도하며」를 사용했었다. ‘골몰무가」는 한 가지 일에 파묻혀 조금도 틈이 없는 것을 뜻한다.

44) ‘편당심’은 북한어로 당파심을 말한다.

45) 김남수, 『침례교찬송가: 복음과 찬미』, 238.

셋째, 하나님을 호칭할 때 존칭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찬송 작가나 편집자들은 신(God)에 대한 존칭을 달리하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님, 예수, 예수 씨, 예수님, 성신, 성령, 성령님 등을 사용했는데 한 찬송 안에서 높임말과 낮춤말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sup>46)</sup> “예수 나를 위하여”(21세기찬송가, 144장)의 후렴은 존칭을 사용하기 위해 ‘예수여’를 ‘예수님’으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4절에서는 ‘예수여’와 ‘예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것은 호칭과 존칭뿐만 아니라 일관성의 문제이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21세기찬송가, 32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를 ‘주님 나를 도우소서’로 바꾸었는데, ‘주’와 ‘주님’을 혼용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한국인이 지은 찬송과 번역 찬송이 갖고 있는 가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찬송이 출판될 때만 관심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찬송 가사에 대한 규범을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표현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새로운 찬송가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1. 찬송가

새찬송가편찬위원회. 『새찬송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2.

---

46) 선교 초기 ‘예수 씨’에 대한 호칭 ‘씨’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에 붙여 높이는 말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점차적으로 존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호칭에 관한 문제는 문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펜윅은 ‘예수’를 ‘예수 씨’로 ‘성령님’을 ‘숨님’으로 표현했다. 김남수, “Malcolm C. Fenwick의 창작 찬송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53집 (2014 봄): 542-3.

찬송가합동위원회. 『찬송가』(aka 합동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49.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aka 21세기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찬송가』(aka 통일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한국찬송가위원회. 『찬송가』(aka 개편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Baptist Hymnal*. Nashville: LifeWay, 2008.  
*Celebrating Grace Hymnal*. Macon, Georgia: Celebrating Grace Inc., 2010.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Mission, North. 『찬성시』. 예수교회당, 1895.  
Fenwick, Malcolm C. 『복음찬미』. 원산: 대한기독교회, 1904.  
\_\_\_\_\_. 『복음찬미』. 원산: 대한기독교회, 1926.  
Jones, George H. and Rothweiler, Louisa C. 『찬미가』. 경성: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5.  
*The Baptist Hymnal*.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91.  
*The Hymnal for the Worship & Celebration*. Waco, Texas: Word Music, 1993.  
Underwood, Horace G. 『찬양가』. 경성: 예수성교회당, 1894.

## 2. 단행본

곽상수. 『예배음악과 한국교회』. 서울: 도서출판 마루, 2002.  
김남수. 『찬송의 이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_\_\_\_\_. 『침례교찬송가: 복음과 찬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문옥배. 『한국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술, 2002.  
조숙자. 『한국 개신교 찬송가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홍정수. 『교회음악 예배음악 신자들의 찬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Eskew, Harry and Hugh T. McElrath. *Sing with Understanding*.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80.  
Grindal, Gracia. *Lessons in Hymnwriting*. Boston, Massachusetts: The Hymn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2000.  
Hustad, Donald P.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Illinois: Hope Publishing Company, 1993.

Routley, Erik. *Hymns and Human Life*. London: John Murray, 1952.

### 3. 정기간행물 및 온라인 자료

구두회. “속칭 「통일찬송가」에 대하여.” 『교회음악』 통권 27호 (1984 봄): 20-4.

김남수. “찬송 가사와 음악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43집 (2009 봄): 495-519.

\_\_\_\_\_. “Malcolm C. Fenwick의 창작 찬송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53집 (2014 봄): 535-57.

오소운. “내 영혼을 찬양하라.” [온라인 자료] <http://blog.daum.net/osowny/15970065>. 2017년 12월 31일 접속.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Hymnary* [온라인 자료] [https://hymnary.org/text/all\\_creatures\\_of\\_our\\_god\\_and\\_king](https://hymnary.org/text/all_creatures_of_our_god_and_king). 2017년 12월 26일 접속.